

작은자공동체

The Least of These Church



일시: 2017 년 2 월 19 일 (주일) 오후 3 시

장소: Judson Memorial Church, Garden Room

모이는 곳: Garden Room, Judson Memorial Church

55 Washington Square South New York, NY 10012

함께하는 이들: 공동체가족과 김동균목사(Rev. Tong-Kyun Kim)

tongkyun@gmail.com / 917-622-2471

<http://www.judson.org/TheLeastofTheseChurch>

작은자공동체 예배순서

2017년 2월 19일(주일) 오후 3시

사회: 김동균 목사

묵상 ----- 다함께

한 마음 한 노래 (시) ----- 낭독: 장동인

"나에게도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 (시, 김정환)

한 마음 한 노래 (시) ----- 낭독: 란상

"내 앞에 사람이 있다" (시, 이정하)

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 김동균 목사

나눔의 이야기: 누가복음서 5,1-11

화두: "나는 주변 사람들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 마음 한 노래 (시) ----- 낭독: 김웅

"사랑" (시, 흥관희)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 다함께

"내 사람이여" (노래, 김광석)

사람 뜻 올리기(기도) ----- 다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 다함께

한 마음 한 노래 (시)

나에게도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

아주 가끔 삶에 지쳐 내 어깨에 실린 짐이 무거워
잠시 내려 놓고 싶을 때 말없이 나의 짐을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

아주 가끔 일에 지쳐 한없이 슬퍼질 때
세상 일 모두 잊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
말없이 함께 떠나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

삶에 지친 내 몸 이곳 저곳 뚱뚱 떠 다니는
내 영혼을 편히 달래주며 빈 몸으로 달려가도
두 팔 벌려 환히 웃으며 안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

하루종일 기대어 울어도 그만 올라며 재촉하지 않고

말없이 어깨를 토닥여 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
나에게도 그런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

(시, 김정한 - 낭독: 장동인)

한 마음 한 노래 (시)

내 앞에 사람이 있다

내 앞에 사람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을 보고 있지 않다.
두 눈은 멀쩡히 뜨고 있지만
무언가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기까지
내 시선에 담겼던 것들.
그 중에 무엇 하나 기억해 낼 수 없는 것은
그냥 건성으로 보고 건성으로 지나쳤기 때문이다.

그래, 우리는 그렇게 앞만 보며 걷는다.
오로지 자기 갈 길만 부지런히 갈 뿐이다.
꽃이 피는지, 바람이 부는지
주변에 대한 관심도 도통 없다.

그렇게 해서 어디를 가려는지,
또 무엇 때문에 가려는지 알지도 못한 채.
물론 더 큰집, 더 좋은 승용차, 더 높은 자리를 위해
열심히 걸어가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많다면?
그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지하철을 탔을 때 종종 느끼는 것이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대부분 무표정이기 일쑤다.
멍하니 허공만 응시할 뿐 주위에 별 관심이 없다,

하기야 주위에 관심을 가졌다가는
이상한 눈초리를 받기 십상이다.
그래서 어쩌다 시선이 마주쳐도 얼른
고개를 돌려 피해 버리고 만다.

상대방에게 괜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은 까닭이다.
어떤 때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다.
볼 것만 보고

자기 일이 아닌 것은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기는 세상이,
그래서 너나 없이
가슴을 꽉 닫아두고 있는 세상이....

창문을 닫으면
햇볕이 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젠 좀 마음의 창문을 열고 서로에게
가벼운 눈인사라도 나눴으면....

오래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의 안부도 묻고,
몸져누운 옛 은사의 병 문안도 갔으면,
옆집에 누가 살고, 그 사람은 무얼 하는지
주변에 관심도 좀 가졌으면....

그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래알이 모여
하나의 백사장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따로따로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있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 그렇게 어울려 살아가야
진정한 삶이라 할 수 있으리라.

내가 너의 배경이 되어주고,
네가 나의 배경이 되어주는 삶.
그렇게 모여 살아야 또 풍성할 수 있으리.

모래알이 많을수록 더 넓고 아름다운
백사장이 되는 것처럼,
다만 내 손을 조금 뻗는 것만으로도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할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있다.

바쁘다고 그냥 지나치려는가?

(시, 이정하 - 낭독: 란상)

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나눔의 이야기: 누가복음서 5,1-11

화두: "나는 주변 사람들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일자: 2017 년 2 월 19 일

5:1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겐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는 예수를 에워싸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5:2 그 때 예수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둔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
5:3 그 중 하나는 시몬의 배였는데 예수께서는 그 배에 올라 시몬에게 배를 땅에서 조금 떼어놓게 하신 다음 배에 앉아 군중을 가르치셨다. 5:4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아라." 하셨다. 5:5 시몬은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뒤 5:6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5:7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같이 고기를 끌어올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두 배에 가득히 채웠다. 5:8 이것을 본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5:9 베드로는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겁을 집어먹었던 것이다. 그의 동료들과 5:10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놀랐는데 그들은 다 시몬의 동업자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5:11 그들은 배를 끌어다 호숫가에 대어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5:1 One day as Jesus was standing by the Lake of Gennesaret, with the people crowding around him and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5:2 he saw at the water's edge two boats, left there by the fishermen, who were washing their nets. 5:3 He got into one of the boats, the one belonging to Simon, and asked him to put out a little from shore. Then he sat down and taught the people from the boat. 5:4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he said to Simon, "Put out into deep water, and let down the nets for a catch." 5:5 Simon answered, "Master, we've worked hard all night and haven't caught anything. But because you say so, I will let down the nets." 5:6 When they had done so, they caught such a large number of fish that their nets began to break. 5:7 So they signaled their partners in the other boat to come and help them, and they came and filled both boats so full that they began to sink. 5:8 When Simon Peter saw this, he fell at Jesus' knees and said, "Go away from me, Lord; I am a sinful man!" 5:9 For he and all his companions were astonished at the catch of fish they had taken, 5:10 and so were James and John, the sons of Zebedee, Simon's partners. Then Jesus said to Simon, "Don't be afraid; from **now on you will catch men.**" 5:11 So they pulled their boats up on shore,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him.**

한 마음 한 노래 (시)

사랑

우리가 사랑이란 이름 하나로 굳게 만나
말 못하는 내가 그대의 다리가 되어 주고
걸지 못하는 그대가 나의 입이 되어 준다면
지평선 너머까지라도 가고픈 길을
우리는 하고픈 말을 하면서 갈 수 있겠네

우리가 사랑이란 이름 하나로 만나
팔 못쓰는 내가 그대의 길이 되어 주고
앞 못보는 그대가 나의 팔이 되어 준다면
빛이 들끓는 그 곳까지 가고픈 길을
우리는 보고픈 것들을 보면서 갈 수 있겠네

그대의 어려움이 나의 사랑으로 풀리고
나의 어려움이 그대의 사랑으로 풀리며
우리가 굽힘없이 한 길 되어 곳곳이 나아간다면
척박한 이 세상도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겠네.

(시, 홍관희 - 낭독: 김웅)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내 사람이여

백창우 작사·곡

C Am F C/E C/F C/E Dm G³ G¹¹
 C G/B F/C C Dm C
 F C Am⁷ F Gsus⁴ G
 C Am F C
 F C G C
 F C G C
 C G F G C D.S.
 C Dm G F C
 C Dm F G C
 C Dm G F C
 C Dm F Gsus⁴ C

어 - 등 을 밝혀 줄 수 - 있 - 다 면 빛
 아 - 품 을 만져 줄 수 - 있 - 다 면 이름
 사 - 량 이 될 - 수 - 있 - 다 면 노래
 하나 - 가진 작은 별 - - 이
 없는 - - 들의 꽃 - - 이 되어도 좋 - 겠 네
 고운 - - 한마 리 - 새가
 너 가는 길 마다 - 함께 다니며 너 슬
 눈물이 고인 - 내 눈속 에
 너의 새 - 벽을 - 날아 다니며 내
 의 길 - 을 비 취 주겠네
 큰 흙 으 로 들 리겠네
 가진 시 - 를 들 주겠네
 그 렵 - 수 있 다 면 그 렵 - 수 있 다 면 내가 - 난
 이 - 토
 한 삼 - 과 영 혼 - 을 - 모두 주 고 - 싶 - 네
 행 복 더운 사 랑 하 나 - 로 - 네가 숨에 묻히 고 - 싶 - 네
 그 - 렵 수 있 다 면 그 렵 수 있 다 면
 네 삶 의 - 끝 자 리 를 지 - 키 고 싶 - 네
 내 사 - - 랑 이 여 - 내 사 - - 랑 이 여 -
 너 무 멀 - - 리 서 - 있는 내 사 랑 - 이 - 여 -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하느님,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의 가슴 앞에서라도
바람 같은 웃음을 띄울 수 있는
향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헤어짐을 주는 사람보다는
손 내밀면 닿을 수 있는 곳에서
늘 들꽃 같은 향기로 다가오는
그런 편안한 이름이 되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봄소식을 편지로 띄워주고
제일 먼저 첫눈이 내린다고
문득 전화해서 반가운 사람

은은한 침묵의 사랑으로
나도 몰래 내 마음 가져가는 사람

아무리 멀어도
갑자기 보고 싶었다며 달려오는 사람

누군가의 가슴에서
그렇게 지워지지 않는 하나의 이름이고 싶습니다.

아멘